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이외선¹, 김은재^{2*}

¹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²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Shock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Lee Oi Sun¹, Kim Eun Jae^{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Geoch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23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2.32점,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3.61점, 임상실습적응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은 감성지능($r=-.26, p<.001$), 임상실습적응($r=-.43,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은 임상실습 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성지능이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21,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환충격을 감소시켜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전환충격, 감성지능, 임상실습적응, 간호대학생,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e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shock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185 associate nursing students (3rd year).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May 1 to June 14, 2019.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Mean point of transition shock(4 point scale) was 2.32. Mean point of emotional intelligence(5 point scale) was 3.61,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5 point scale) was 3.40. Transition shock wa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r=-.26, p<.001$)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r=-.43, p<.001$) i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r=.36, p<.001$). Emotional intelligence has been shown to mod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shock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Delta R^2=0.21, p<.001$). Therefore, to decrease the transition shock and to increase the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for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Transition Shock,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Eun-Jae Kim(kkhyang@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4,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1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1]. 전환은 하나의 상태나 조건 또는 장소에서 이 전과 또 다른 상태, 조건 또는 장소로의 이동으로 일정기간을 거쳐 발생하는 필연적인 변화와 적응과정이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으로 많은 전환을 겪게 되는데, 이론교육에서 실습교육으로의 교육형태의 전환, 대학에서 병원으로의 학습환경의 전환, 간호대학생에서 학생간호사로서의 역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2]. 교육형태의 전환에서는 이론을 실무에 실제 적용하는 데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습환경의 전환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임상실습 환경과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인들과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위축을 겪게 되며, 역할의 전환에서는 학생간호사로서의 역할 모호성 등으로 인한 혼란, 혼동, 상실 등의 감정인 전환충격을 경험하게 된다[2].

전환충격은 전환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제 업무와의 불일치가 있을 때 역할, 책임, 관계, 지식 등의 차원에서 겪는 의구심, 혼란, 혼동, 상실 등의 감정을 말한다[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에서 임상실습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은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간호사도 전환충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7]. 그리고 전환충격이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을 감소시켜 임상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2]. 선행연구[7]에서 전환충격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환충격이론은 역할, 책임, 관계, 지식, 기대의 측면에서 대상자가 겪는 불안, 불충분, 불안정 등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3]. 그러므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아는 긍정적 감성성향인[8] 감정지능이 전환충격을 조절하여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 세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감정지능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8]. 선행연구에서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감성을 잘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

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선행연구에서 감정지능이 낙관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1] 감정지능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의 관계에서 감정지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의 관계에서 감정지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전환충격, 감정지능 및 임상실습적응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환충격, 감정지능 및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전환충격, 감정지능 및 임상실습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정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정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도 소재 J시와 G군의 2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자가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학년으로 첫 임상 실습을 2주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이거나 실습 후 1주일 이내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Kim과 Shin의 연구[2]를 기반으로 효과크기를 .2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설정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164명으로 계산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18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윤리적 고려는 대상자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설문지 작성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간호대학생의 성별, 종교, 임상실습 사전지식 준비도, 임상실습 기관종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전환충격

Kim 등[5]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Kim & Shin[1]이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환충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 Shin[1]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3 감성지능

Wong과 Law[8]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4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적응은 Yi[13]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자가 대상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간호대학생 3학년으로 첫 임상 실습을 2주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이거나 실습 후 1주일 이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2019년 5월 1일부터 부터 6월 14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을 하였다. 배부된 20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185부(92.5%)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적응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학생 156명(84.3%), 종교는 '없다'가 131명(70.8%)이었다. 사전지식 준비도는 '보통이다'가 113명(61.1%), 실습기관은 대학병원 179명(96.8%), 실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88명(47.6%), 임상실습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4점에서 7점사이가 110명(59.5%)로 가장 많았고, 평균 5.50점 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9	15.7
	Female	156	84.3
Religion	Yes	54	29.2
	None	131	70.8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Sufficient	27	14.6
	Neutral	113	61.1
	Insufficient	45	24.3
Practicum hospital type	Advanced general hospital	179	96.8
	General hospital	6	3.2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Dissatisfied	34	18.4
	Neutral	88	47.6
	Satisfied	63	34.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0 ~ 3	40	12.6
	4 ~ 7	110	59.5
	8 ~ 10	35	18.9
	Mean	5.50±0.16	

3.2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2.32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3.61점,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3.4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Transition Shock,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N=185)

Variables	Mean±SD
Transition Shock	2.32±0.48
Emotional Intelligence	3.61±0.47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3.40±0.45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환충격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검증결과 임상실습 불만족군이 만족군보다 ($F=5.27$,

$p=.006$).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8 ~ 10점인 군이 0 ~ 3점 군보다($F=27.6$, $p<.001$) 전환충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참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참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적응은 성별, 사전지식준비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가 여자보다($t=3.10$, $p=.002$), 사전지식 준비도가 충분한 군이 보통 군과 부족 군보다($F=12.8$, $p<.001$), 임상실습 만족 군이 보통 군과 불만족 군보다($F=5.36$, $p=.005$),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0 ~ 3점 군이 4 ~ 7점 군과 8 ~ 10점 군 보다($F=12.8$, $p<.001$)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3.4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정도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감성지능 및 임상실습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환충격은 감성지능($r=-.26$, $p<.001$)과 임상실습적응($r=-.43$, $p<.0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임상실습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3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ransition Shock,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Variables	Categories	Transition Shock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Mean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	2.17±0.57	-1.90	.058	3.76±0.42	1.83	0.70	3.61±0.45	3.10	.002
	Female	2.35±0.46			3.59±0.47			3.33±0.44		
Religion	Yes	2.30±0.51	-.41	.680	3.71±0.42	1.80	.073	3.45±0.46	1.36	.173
	None	2.33±0.47			3.57±0.48			3.35±0.45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Sufficient	2.19±0.68	1.56	.213	3.80±0.48	2.96	.054	3.75±0.44	12.8	<.001
	Neutral	2.32±0.43			3.60±0.44			3.34±0.40		
	Insufficient	2.40±0.44			3.53±0.50			3.24±0.47		
Practicum hospital type	Advanced general hospital	2.33±0.48	.92	.357	3.62±0.46	.95	.342	3.38±0.46	.58	.563
	General hospital	2.14±0.55			3.43±0.58			3.27±0.36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Dissatisfied ^a	2.47±0.60	5.27	.006	3.53±0.44	2.62	.075	3.23±0.63	5.36	.005
	Neutral ^b	2.37±0.40			3.57±0.42			3.33±0.34		
	Satisfied ^c	2.17±0.47			3.72±0.52			3.25±0.45		
Stress of clinical practice	0 ~ 3 ^a	2.03±0.52	27.6	<.001	3.70±0.53	1.65	.195	3.63±0.38	12.8	<.001
	4 ~ 7 ^b	2.29±0.41			3.62±0.42			3.36±0.39		
	8 ~ 10 ^c	2.76±0.34			3.50±0.50			3.13±0.58		

Table 4. Correlations of among Variables (N=185)

Variables	Transition Shock	Emotional Intelligence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r(p)	r(p)	r(p)
Transition Shock	1		
Emotional Intelligence	-.26(<.001)	1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43(<.001)	.36(<.001)	1

3.5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환충격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전환충격과 조절변수 감성지능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환충격, 조절변수인 감성지능,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다. 상호작용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 한 후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14].

분석결과 Dubin Watson값이 2.03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7 ~ 1.16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전환충격과 감성지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R제곱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 = 0.21,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환충격

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임상실습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한 간호대학생 3학년으로 2주 이상 임상실습 중이거나 실습을 마친지 1주일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2.32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Shin[4]의 연구 2.45점과 간호대학생을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15]의 연구 2.41점 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대상과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5개의 부속병원과 10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5] 2.66점, Lee와 Se[7]의 연구 2.73점, 300병상 미만 7개 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16]의 연구 2.55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이 중간보다 높은 상태이고, 임상실습교육기관이 일치하는 않는 상태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본 연구 대상자인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보다 선행연구의 대상인 4학년이 전환충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경험 기간에 따라 전환충격이 감소되지 않고 실습기간 전반에 대해 전환충격이 지속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시 전환충격을 파악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 7, 16]에서 전환충격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환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 저하로 이직을 하게 되므로[6] 간호대학생 때부터 전환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교육으로 신규간호사가 전환충격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환충격 항목 중 '나는 실습 중 환자를 간호하는데 이론적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현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Shock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N=185)

Step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R ²	ΔR^2	F	p
1	Transition Shock	-.401	.063	-.42	-6.32	<.001	.179	.175	.179	40.00	<.001
	Emotional Intelligence	-.335	.063	-.35	-5.30	<.001	.248	.240	.069	29.9	<.001
2	Transition Shock	.264	.065	.27	4.07	<.001					
	Transition Shock	-.377	.065	-.39	-5.80	<.001	.269	.257	.021	22.2	<.001
3	Emotional Intelligence	.257	.064	.26	4.00	<.001					
	A * B	.294	.127	.15	2.30	<.001					

장에서 시뮬레이션, 문제해결 학습, 사례중심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이론적 지식을 실습에 잘 통합·적용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지도시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수가 협력하여 임상실습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학습하도록 하여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환충격은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전환충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1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군이 전환충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 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가 협력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 유발원인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임상실습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가 종합병원인 경우보다 전환충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과 Cho[1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환충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합병원 실습학생 대상수가 10명 이하로 매우 적은 상태로 추후 대상자수를 균일하게 하여 임상실습기관별 전환충격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환충격은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적응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전환충격이 클수록 감성지능이 낮고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4]에서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적응이 부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적응에 전환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적응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전환충격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과 감성지능,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없는 상태로 본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전환충격이론은 역할, 책임, 관계, 지식, 기대의 측면에서 대상자가 겪는 불안, 불충분, 불안정 등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3]. 그러므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할 줄 아는 긍정적 감성

성향인[8] 감성지능이 전환충격을 조절하여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본 선행연구[17]에서 감성지능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감성지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성을 활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성향이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문제해결 중심 대처 전략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전략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전환충격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임상실습시 전환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여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교육 현장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성지능과 전환충격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G도 소제 J시와 G군의 2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한 상태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표본수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을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2.32점으로 보통보다 높고,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3.61점, 임상실습 적응은 3.40점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과 감성지능($r = -.26, p < .001$), 임상실습적응($r = -.43, p < .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환충격이 클수록 감성지능이 낮고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임상실습적응은 정적 상관관계($r = .36,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충격과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를 감성지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21, p < .001$).

그러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환충격을 감소시켜 임상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에

게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후 전환충격의 감소효과에 대한 연구와 학년별, 임상실습 기관별 등 임상실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환충격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Y. Kim & Y. S. Shin. (201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ransition Shock Scale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5(1), 17-26.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17
- [2] S. Y. Kim.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3] J. E. Duchsche. (2009).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5), 1103-1113.
DOI: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x
- [4] S. Y. Kim & Y. S. Shin. (2018).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34-242.
DOI: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5] E. Y. Kim, J. H. Yeo, and K. I. Yi.(2017). Development of the Transition Shock Scale for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589-599.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5.589
- [6] K. M. Sin, J. O. Kwon & E. Y. Kim.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3), 292-301. 2014.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4.20.3.292
- [7] S. Y. Lee. & S. R. Suh. (2017).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Reality Shock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4), 317-32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317
- [8]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https://doi.org/10.1016/S1048
- [9]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30, 1018-1034.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10] J. D. Mayer, D. R. Caruso,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DOI:http://dx.doi.org/10.1016/S0160-2896(99)00016-1
- [11] H. N.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f Optim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1), 177-185.
DOI:https://doi.org/10.5762/KAIS.2016.17.11.177
- [12]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13] Y. J. Yi. (200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93-602.
- [1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15] J. Y. Kim & J. Y. Cho. (2019).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Transition Shock.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1007-1024.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6.1007
- [16] H. S. Choi. (2018). Transition Shock of New Graduate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ul.
- [17]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창신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도립거창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sun @ daum.net

김 은 재(Kim Eun Ja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노인복지관리학 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치매, 기본간

호학

· E-Mail : kkhyang@hanmail.net